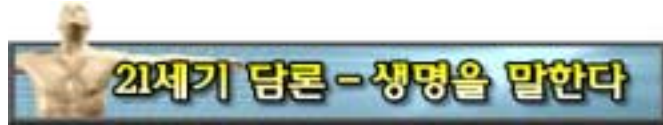


# 흙벽돌 집은 최고의 친환경 주택



## ■ 현대건축의 대안 뭘까

1972년 '로마클럽'이 "현 추세대로 진행된다면 지구의 성장은 앞으로 100년이 한계"라는 보고서를 발표한 후 인류는 환경의 심각성에 눈뜨기 시작했다. 그 후 1992년 '리우 환경회의'에서 '지속 가능한 개발'이라는 명제가 대두됐고 1997년 '교토 환경회의'에서 유엔의 '기후협약에 관한 의정서'가 채택되면서 각 분야에서 생태주의적 삶의 방식이 연구되기 시작했다.

생태주의란 지구 생태계가 부분과 전체, 개체와 환경이 밀접하게 연결된 유기체라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이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전체와 조화를 이루고 자원 및 생명순환의 법칙을 깨지 않는 방식을 추구하는 것이 생태적 삶이다.

이처럼 모든 분야에서 환경친화적 방법이 연구되기 시작하면서 먹는 문제와 함께 삶의 근간이 되는 주택 문제

## 전통가옥의 친환경 요소에

## 현대건축의 편의성 결합을

가 자연스럽게 논의되었다. 즉 어떤 집이 정신적으로 편안하고 육체적 건강에 도움이 되는가를 연구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런데 이 명제는 자연환경과 조화, 그리고 자원 절약과 맞물린다. 자연과의 조화가 정신적 안정을 가져다 주고 자원절약형 주택구조가 건강에도 좋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건축가들은 전통 마을과 가옥에서 이같은 조건을 거의 완벽하게 갖춘 환경친화적 건축의 전형을 찾는다. 그 결과 소비 지향적이고 반생태적 현대 주택의 대안으로 전통 마을과 가옥들이 눈길을 끌기 시작했다. 그럴수록 없던 것이 기술 개발 이전에 지어진 가옥들은 자연히 환경에 적응하는 구조를 택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통 가옥은 이제 건축사, 혹은 건축 미학적 연구 대상이 아니라 생명원리에 역행하는 현대 건축의 대안으로 각광을 받기 시작한 것이다.

생태주의 건축가들은 전통 가옥의 친환경적 요소와 현대 건축의 편의성을 결합 시키는 문제를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동아시아 주거 건축을 연구한 한필원(韓弼元, 한남대 건축공학과) 교수는 "전통 가옥의 생명친화적 요소와 현대건축 기술이 접목될 때 건축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열릴 것"이라고 말한다.

● 우리나라에서 생태 건축에 대한 의식이 싹튼 것은 언제 부터입니까.

1990년대는 국제적으로 모든 분야에서 생태적 관심이 싹트는 시기였습니다. 그 무렵 우리나라는 신도시 개발로 대규모 아파트 건설 붐이 일었는데 그 여파로 환경파괴적 건축에 대한 반성이 일어났습니다.

● 아파트가 건강은 물론 공동체적 삶에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은 대부분 사람들이 막연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아파트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어떤 것을 들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아파트 단지는 대체로 평지에 들어서 있습니다. 공사하기 쉽고 공기도 쫓아지니까 업자들은 선호 하지만 일조량 확보, 배수 등을 고려하면 5도 이상의 경사가 필요합니다.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 아파트들이 얼마나 무감각하게 지어졌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 전반적인 문제점을 한번 짚어 주시죠.

첫째 대부분의 수도권 신도시가 그린벨트 경계 내에 있어서 환경, 생태학적으로 적절치 않습니다. 둘째 개발용지를 확보하기 위해 자연녹지, 하천 등 자연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셋

## ⑫ 한필원교수의 생태주의 건축

째 주거단지 내의 조경수 등 복원된 자연도 근린 생태계와 연결성이 없습니다. 조경은 단지 미관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 지역 자생수종과 연결성이 있어야 합니다. 냇재 동(棟)의 확립적 배치로 냉, 난방에 있어서 태양열, 바람 등의 활용을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섯째 자원의 소비형태와 순환방식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기존의 공급처리 시스템은 자원 및 에너지의 일방적 소모체제라 할 수 있지요. 이러한 문제점들은 부분적인 개선으로는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즉 인간의 이용목적에 맞춰 자연조건을 극복하는 방식에서 자연조건에 순응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 그에 대비해서 전통 마을의 친환경적인 부분은 어떤 것인가요.

임지조건부터 다뤄야 합니다. 산맥을 산과 구릉이 병풍처럼 감싸고 있는데 우선 아늑한 느낌을 주고 자연스럽게 영역을 표시 하면서 방풍 역할을 합니다. 지형은 산을 등지고 있으면서 경사가 급격히 완만해진 곳에 자리잡고 있지요. 대개 남향이어서 일조 시간이 길고 통풍이 잘 되는 곳입니다.

● 산을 등지고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배산임수(背山臨水)라고 하지요. 계곡에서 흘러 나오는 물을 이용하기 위해서입니다. 물이 흐르니까 앞에는 하천이 있기 마련입니다. 하천이 없는 곳에는 저수지를 만듭니다. 산이 바람막이가 되기도 하고요.

● 가옥들의 배치는 어떤가요.

조금씩 엇갈리게 배치돼 있지요. 햇빛과 조망을 방해하지 않으려는 배려지요.

● 대밭이 있는 집이 많은데 관상용만은 아니겠지요.

우리선조들은 대를 지조의 상징으로 숭상하기도 했지만 백백한 대밭이 방풍 역할을 합니다. 생활용수를 만드는 원자재로도 쓰이고 그 대신 뜰에는 활엽수를 심습니다. 활엽수는 여름에는 햇빛을 차단하고 겨울에는 잎이 지고 없으므로 일조량을 방해하지 않거든요.

● 소재는 대개 조립식 목재에 흙벽돌인데 지붕은 소재가 다양한 것 같아요.

대부분 빗집 지붕이지만 논농사가 많지 않은 곳에서는 너와, 역새풀 등 다양한 소재를 쓰지요. 어쨌든 전통 가옥의 소재는 흙이든 모두 자연으로 돌아가는 소재들입니다. 주위에 많이 널려 있는 것들이어서 경제적이고 인체에 좋지요.

● 에스키모인들이 얼음 집을 짓는 것처럼 말이지요.



한필원 교수는 공급에만 치중해 온 주택 정책은 이제 인간과 자연을 생각하는 건축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한다.

● 이언탁기자 utl@kdaily.com

## 자연 훼손하며 지은 아파트 공동체 삶에 큰문제 에스키모인의 얼음집 대표적 환경친화 주거양식

그렇습니다. 흙, 나무 등 소재를 가까이서 구하는 것은 경제적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바로 환경친화적이거든요.

● 농촌 마을에 슬레이트 지붕이나 벽돌집은 번센스의 셈이군요.

바로 거기에 현대 건축의 문제가 있습니다. 서구 건축 양식이 들어 오면서 집의 구조나 소재까지 확립되다 보니 우선 지역 풍토와 맞지 않고 자원의 고갈을 재촉합니다.

● 전통 마을이나 가옥이 주위 경관과 조화를 이룬 것은 당시 목수들의 미적 감각일까요.

자연 환경과 더불어 오래 살다보면 이론적으로 배우지 않아도 저절로 몸에 배는 것 같아요. 대표적인 건물로 전북 부안에 있는 내소사 요사체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쪽 박공이 뒷산 봉우리와 비례를 이루고 용마루 선이 능선과 기막히게 일치 하거든요.

● 전통 가옥의 이런 것들을 도심의 주택단지 특히 아파트에 도입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그동안에는 정부 정책이 우선 물량공급에 역점을 두다 보니 환경까지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또한 모델 하우스만 보고도 사람들이 몰려 드니까 시공업체도 환경친화 같은 건 생각할 필요도 없었지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주택보급율이 어느정도 올라갔고 환경에 대한 관심도 높아져 달라지리라 보는데 순순히 것부터 시작해 볼만 합니다. 예를 들자면 단지내 조경지역을 뒷밭으로 만들어 보는 겁니다. 꼭

잔디를 심어 놓고 들어 가지도 못하게 할 이유가 없지요. 뒷밭을 만들어 노인을 소일거리고 되고 아이들 정서에도 좋지않겠습니까. 가정에서 나오는 음식 쓰레기를 퇴비로 사용할 수도 있고 단지에 따라 연못을 만들 수도 있다고 봅니다. 연못은 장마철 비를 가두어 하수도가 넘치는 것을 막고 온도조절 역할도 합니다.

● 아파트 내부는 어떻게 변화를 줄 수 있을까요.

필수 있으면 맛바람이 통하게 해야 합니다. 층수를 줄여 바다를 두껍게 하면 발코니를 정원이나 상추나 고추 정도 자급할 수 있는 채마밭으로 가꿀 수도 있지요.

● '가이아 주택헌장' (The Gaia House Charter)에 보면 '정신의 평화를 위한 디자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대개 아파트 주민이 되면 소비지향적이고 개인주의 성향으로 변하는 데 아파트의 어떤 점이 주민의 의식을 이렇게 바꿔 놓는지 모르겠습니다.

아파트의 구조가 우선 이웃과 단절돼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또 편의성만 강조한 것도 원인입니다. 제 친구중에 매일 자고 일어 나면 103이라는 앞 동은 숫자만 보니까 짜증스럽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듯 삭막한 구조와 환경이 인심을 각박하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 아파트에도 전통 마을의 우물, 정자, 사방방 같은 기능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는데요.

'एको 빌리지' 라는 말을 넣은 분양광고가 많더군요. 아적은 말 뿐이지만. 이 말이나왔다는 자체가 곧 환경에 신경을 쓴 아파트도 지어질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합니다. 이럴테면 어느 동의 한층을 빈공간으로 두어 공동 공부방, 탁구장, 더 발전하면 공동 취사장이나 빨래터 만들 수도 있지요.

● 개인이 각자 자기 집에서 환경친화적으로 사는 습관도 중요 하겠지요.

물론입니다. 이른바 편리함이라는 것이 그만큼 역작용이 있거든요. 요즘 웬만한 다 가구 주택도 초인종을 누른 사람의 얼굴을 안에서 확인하고 대문을 열어주는 장치가 있습니다. 오디오, 비디오, 컴퓨터 시스템은 말할 것도 없고 냉난방이 자동으로 조절되는 장치들이 있는데 모든 편리를 다 누리는 것은 전자파 흡수에 갇혀 사는 꼴입니다.

● 김재성 논설위원 jskim@kdaily.com

## ■ 한필원교수

- ▲ 1961년생
- ▲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학사, 석사, 박사
- ▲ 중국 청화(淸華)대학 건축학원 연구 학자
- ▲ 공간 종합건축사무소 근무
- ▲ 한남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1996~현재)
- ▲ 저서: '주거의 문화적 의미' (공저)
- ▲ 역서: '인간 형태와 건축 디자인' (C. M.Deasy저) 등



〈스포츠 서울〉화재작 '영혼의 불가사의' 연재 **묘심화 법사 영험산문집 「神」의 세계를 교통하고 「神」과 대화하는 권능의 대법사!!**

# 神氣를 佛心으로 이긴 법사의 운명 이야기

영 · 간경화 · 간질 · 정신질환 · 낙태 · 교통사고 · 입시실패 · 흡초성 · 크고 작은 가정사에는 반드시 통인이 존재한다.  
당신에게 닥친 불행의 원인을 찾아 벗어나게 해 줄 수 있습니다.

**아무도 보이지 않는 허공의 영계(靈界) 귀신(鬼神)들과 나누는 오싹한 이야기들.  
구병시식(救病施食)을 통해 귀신쫓는 퇴마사로 화재가 된 묘심화 법사!!  
빙의(憑依)된 영혼과 신병환자들은 이 책을 만나 마음의 평안을 갖게 될 것이다.**

**빙의:** 육체를 통해 전혀 다른 존재가 들어와 정신 사이를 교란시키고 지배하는 현상. 우주법계를 떠돌아 다녔던 영체들이 사람 몸 속으로 들어오는 것을 말한다. 깊은 시간까지 잘못된 생활이 연속되어 불안전조하고 집중력이 떨어져서 매사에 자신이 없어진다. 또한 건강증과 약물에 시달리게 되는데 대개는 가족 중 죽은 사람들이 자주 나타나 자신을 어디론가 데려가는 꿈을 꾸거나 빙이 개, 고양이, 갓난아기가 보이기도 한다.

**갑자기 우울해지고 공격적이며 포악한 성격으로 변해 다른 사람처럼 행동할 때 빙의가 뭘을 조심해야 한다!!**

묘심화 법사 영험산문집

## 오는 세상 편안하십니까

도서 **두림**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52-16호 방호 B/D 4F  
출판 **두림** TEL : 323-2100(대) FAX : 3143-1821

전국 서점에 있습니다. 신국판 / 값 7,500원

묘심화 대법사 TEL : 395-2104

묘심화 법사 영험산문집

### 오는 세상 편안하십니까

오는 세상 편안하십니까 읽는 아들에게

- 당신이 살아가면서 느끼는 모든 괴로움과 고통, 슬픔은 어디에서 오는가?
- 당신이 행복한 삶을, 즐거운 삶을 누리게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 당신이 갖게 될 법과 가장 큰 문제, 고통을 받고 있다면 그 원인과 처방 방법은...
- 당신이 영혼의 세계를 알지 못한다면 신(神)의 존재를 통해서 알 수 있는가?
- 당신이 지금보다 더 높은 차원의 세계를 이해하고 영혼의 세계에 도달함으로써 즐거움 원한다면 그 길을 찾을 수 있는가?

현대이학으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것들을 그리고 유체이탈을 통하여 가령의 우편을 미리 차단시키고 귀신이 유체이탈 현상을 보고 싶어는 신령의 경지에 까지 오를 묘심화 법사!!

일찍이 국제 언론에서 인정하며 화재가 된 여류문학의 대가(大家)이다.

신의 세계를 날아다니고 그들과 대화하여 심지어 그들을 다스리기까지 하는 그녀의 영혼 신문임을 소개한다.